



새로운 도약
당신과 함께

서울대학교 모금캠페인



제4회
서울대학교
장학금 수기공모전
수상작 소개



서울대학교발전기금
Seoul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

목 차

심사평	심사위원장 손유경 교수	07
수상소감	박현진	11

수상작 소개

최우수상	상처의 의미	박현진	15
우수상	장학금의 순간	조가영	21
	상대적인 가난	최진현	25
장려상	저의 어린 날을 빛내주신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박도영	31
	지금 무엇이든 하고 싶어서, ‘장학 컨설턴트’가 되다.	박제호	35
	꺼져 가는 불씨에 기름을 부어준 장학금	정찬영	39
	버팀목이여, 감사히 또 안녕히	송성운	43

| 심사위원장 손유경 교수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수기라는 글의 매력은 그것이 누군가의 ‘진짜’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독자의 믿음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수기를 쓰거나 읽을 때 우리는 한결 진지하고 겸손해진다. ‘나’의 경험을 선불리 꾸며낼 수도, ‘남’의 삶을 함부로 재단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할까?’를 고민하는 사람은 없다. 우리는 대체로 ‘나는 왜’ 혹은 ‘나만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를 묻고 그 이유를 탐구한다. 불행이 성찰을 이끄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성찰을 수행하기 위해 사람들은 종종 글을 쓴다. 일기나 편지, 수기 같은 글을 읽으면서 독자들이 감동을 받는 것은, 그런 글들이 기본적으로 삶에 대한 글쓴이의 성찰에 기대고 있기 때문이다. 수기는 이처럼 글쓴이의 개인적 체험에 기반을 두고 씌어지지만, 그것이 당사자의 삶을 넘어 어디에 사는 누구의 마음에까지 가닿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나’의 글이지만 ‘나’의 테두리를 훌쩍 뛰어넘는 것이다.

제 4회 서울대학교 장학금 수기공모전 심사의원으로서 응모작들을 읽으며 적지 않은 감동과 보람을 느꼈다. 동시에, 수기라는 글을 대상으로 과연 순위를 매기는 일이 가능한지도 자문해 보았다. 물론 항목별 채점 기준이 없는 것은 아니다. 표현성(얼마나 효과적으로 글을 구성하고 표현하였는지), 독창성(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진부한 내용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생각이 잘 드러나는 참신한 내용인지), 진정성(실제의 체험과 체험을 통한 사고가 얼마나 깊이 있게 나타나

있는지), 주제적합성(‘장학금 수기공모’라는 주제에 얼마나 적합한 글인지) 등이 그것이다. 위에서 열거된 기준들을 고르게 충족시키면서도 특별히 어떤 ‘울림’을 갖는 글들이 눈에 띄었다. 즉 표현력, 독창성, 진정성, 주제적합성이라는 항목 옆에는 사실 보이지 않는 기준 하나가 더 있는 셈인데, 그것을 일단 ‘감응력’이라고 규정해보면 어떨까?

서울대학교 장학금 수기공모전은 올해로 제 4회를 맞이했다. 심사위원들 간의 큰 이견 없이 순조롭게 심사가 진행되었다. 모두 58편의 응모작 중 우선 학생 부문에서 12편, 일반 부문에서 6편을 1차로 선정한 후, 이를 5명의 심사위원이 각각 채점하여 최우수상 1편과 우수상 2편, 장려상 4편을 선정하였다. 최우수상은 자유전공학부 학생 박현진 씨, 우수상은 제약학과 동문인 조가영씨와 경영학과 학생 최진형 씨에게 각각 돌아갔다. 박현진 씨의 글에서는, 사람은 누구나 상처 없이 자라고 싶어 하지만 사실 성장통 없이 자라는 이는 없다는 아름다운 발견이 눈에 띄었다. 장학금이라는 든든한 지원군 덕분에 무사히 학업을 마치고 사회생활을 시작했다는 조가영 씨와, 젊은 세대의 내면에 자리 잡은 상대적 박탈감의 문제를 담담하게 서술한 최진형 씨에게도 축하의 마음을 전한다. 장려상은 나눔의 기쁨에 대해 이야기한 영어교육과 학생 박도영 씨와 ‘장학 컨설턴트’의 꿈을 키우고 있는 수학교육과 학생 박제호 씨, 누구나 기적을 이룰 있다고 말하는 기계공학과 학생 정찬영 씨, 그리고 장학금을 삶의 버팀목이라 부르는 전기정보공학부 송성윤 씨가 각각 수상했다.

코로나 19라는 초유의 팬데믹 상황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기억하고 지켜나가는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에 새삼 안도하게 된다. 수상을 하신 분들께는 축하의 마음을, 응모해주신 모든 분들께는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서울대학교 장학금 수기공모전이 앞으로 좀 더 활성화되고 보다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내외 구성원들 모두가 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게 되기를 기대해본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유전공학부에 재학 중인 학부생 박현진입니다.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기회를 마련해주신 모든 분들과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고 계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살다보면 지금까지 걸어온 삶의 발걸음을 헤아려 볼 때가 있습니다. 나름 반듯하게 걸어왔다고 생각해도, 막상 돌아보면 비틀거린 발자국이 찍혀 있거나 넘어진 자국이 있곤 합니다. 때로는 걷기를 포기해버리고 좌절하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혼자라고 생각했던 순간마다 제 곁에는 저를 부축해주고 도와주던 이들의 발자국이 함께 찍혀 있습니다. 제가 내딛었던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수많은 이들의 마음이 녹아들어 있었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고서야 깨달았습니다.

장학금을 받기에 턱없이 부족한 저에게 많은 분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셨습니다.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빈곤이 꿈을 좀먹지 못하도록 선뜻 손을 잡아 주셨습니다. 이제는 저희의 차례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꿈을 향해 도약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의 청년들에게 저희가 받았던 도움의 배턴을 건네어 주겠습니다. 작은 선의로 시작되었던 물결이 거대한 파도가 되어 세상을 바꾸어 낼 때까지, 끊임없이 도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끝까지 저희를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시길 바랍니다.

힘겨운 시기임에도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함께 걸어가고 계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03.19. 공모전 수상자 박현진

상처의 의미

| 박현진 (자유전공학부)

상처 없이 자라고 싶었습니다. 그렇다고 완전무결한 삶을 바랐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가세가 기울기 시작한 것도, 하고많은 연도 중 하필이면 국가가 휘청거리던 98년도를 생년으로 삼아야 했던 것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라도 자신이 태어날 배경을 선택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난은 어느새 일상이 되어 제 삶의 태도를 빚어주었습니다. 단 한 번의 실패에도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은 제게 복지부동의 자세를 길러주었습니다. 남들이야 도전하더라도 저는 가진 것을 지키는 법을, 누군가 끊임없이 실패하며 성장해나가더라도 저는 현재에 응크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릴 때는 기묘하게도 이런 태도가 조숙함으로 드러났습니다. 빛을 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반드시 받은 만큼 베풀었고, 날름 받아먹기보다는 사양하는 것에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엔 외삼촌댁에 방문했습니다. 밥을 먹고 가라는 외숙모의 말씀을 한사코 사양하며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제 말이 인상 깊으셨던지 그날 외가 모임에서 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모두 와르르 웃음을 터뜨렸지만, 저만큼은 웃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경직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시험에는 적성이 있었는지, 학교에 들어와서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업적 성취가 마냥 기쁘지는 않았습니다. 성적이 오를수록 더 무거운 책임감이 지워졌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병고와 형의 불치병 확진,

그리고 몇 억을 훌쩍 넘긴 빛은 제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친구들은 남들 다하는 응석 한 번 앓는 제 모습을 보고, 힘들 땐 위로받아도 되는 나이라며 걱정해주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다들 뭘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중요한 건 돈이었습니다. 받은 만큼은 값어치를 해야 한다는 생각,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했었습니다.

중요한 시험이 끝난 날, 주전부리 한 번 앓던 저는 큰맘 먹고 비싼 떡볶이 한 접시를 사 왔습니다. 한 접시를 천천히 먹던 중 아버지께서 집에 돌아오셨습니다. 무슨 떡볶이냐는 말씀에 전 철이 없게도, 버르고 버르다가 사 먹는 떡볶이라는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떡볶이를 먹는 제 모습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봐주셨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께서는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진아, 그런 떡볶이 하나 못 사주는 아빠라 미안하구나...” 당황해 말을 잃은 제게, 아버지께서는 대학교에 다닐 적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집안에서 유일하게 대학교로 진학하신 아버지께서는 가난한 자취생활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서울에 볼일이 있으셨던 아버지께서는 자정 무렵 서울로 올라오셨고, 눈이 내리는 텅 빈 명동거리를 걸으셨습니다. 그날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신 아버지의 눈에 국숫집이 보였습니다. 수중에 돈 몇 푼밖에 없으셨던 아버지께서는 공중전화로 후배의 도움을 받아 겨우 국수 한 그릇을 사 드실 수 있었습니다. 따뜻한 김을 내는 국수 그릇을 바라보고 있자니, 그게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으셨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때 다짐하셨습니다. 당신의 자식에겐 무엇이든 먹고 싶은 것만큼은 모두 사주시겠노라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제 손 위에 놓인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 부드러운 손과는 달리 고된 일로 굳은살이 잔뜩 박인 투박한 손이었습니다. 한때 가슴 벅찬 꿈을 품었던 청년은 간데없고, 제게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주신, 이제는 머리가 희끗희끗해지신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때 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돈을 아끼는 것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의 행복, 그 한 가지만 바라보시고 삶을 쏟아내셨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 당시 저는 대학 등록금 문제와 고정적인 수입 때문에 육군사관학교로의 진학을 생각하고 있었고, 실제로 육사에 지원하여 합격까지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험을 계기로 제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볼 수 있었습니다. 육군사관학교로의 진학에는 저의 적성도, 흥미도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그토록 두려워하던 도전에 발을 디더보기로 했습니다. 서울대학교로 진학하여 학업을 이어가기로 한 것입니다.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갑작스레 등록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에 아찔했습니다. 높은 꿈과 차가운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던 제게 손을 뻗어준 것은 장학금이었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지원했던 장학제도에 덜컥 합격하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장학금의 도움으로 서울대학교에 합격하고, 학부생의 신분으로 정문을 지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학금은 제게 단순한 기회 이상의 것을 선물해주었습니다. 과감히 도전하는 이들만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 상처를 각오한 이들만이 꿈을 위해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다는 믿을 수 없는 사실을 직접 보여준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한가운데 있는 연못에는 아름다운 연꽃이 피어 있습니다. 연꽃은 몇 백 년이고 조건이나 환경이 맞지 않으면 싹을 틔우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연꽃을 싹 틔우게 하는 방법은, 그 단단한 씨앗에 흠을 내어 물이 흘러들게 하는 것입니다. 한 알의 연꽃 씨가 꽃피우기 위해서 상처가 필요하듯이, 사람도 성장하고 변화하기 위해선 도전이라는 상처가 필요합니다. 저라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성장을 위한 상처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상처 없이 성장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성장통 없이 자라는 이는 없다는 것을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겪은, 그리고 앞으로 겪을 수많은 실패는 저의

자양분이 되어 제 성장의 기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 첫발을 디딜 수 있도록 소중한 가르침을 허락해주신 수많은 이들에게 감사합니다. 얼굴도 모르는 이의 꿈을 위해 과감히 기부를 결정한 보이지 않는 마음. 그 따스한 손길들에 힘입어 저는 지금 이 자리까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저도 수많은 청년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사다리의 가로대 몇 개를 놓을 수 있게 되기를 꿈꿔봅니다. 누군가의 호의로 시작된 작은 물결이 크나큰 파도를 불러일으켜 결국은 세상을 바꾸게 될 때까지, 끊임없이 도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장학금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감사해요 #이게 얼마야 #열심히 살아야지

| 조기영 (약학대학 제약학과)

장학금의 순간

나는 운이 참 좋은 사람이다.

지금의 내가 학자금 대출 부담 없이, 온전히 사회생활을 즐길 수 있는 것은 순간순간 내게 찾아와준 장학금의 순간들 덕분이다.

내게 가장 먼저 찾아와준 장학금은 모교인 고등학교 재단의 장학금이다. 약학대학 입학 전, 전적대 신입생 시절에 지원했던 장학금인데, 고교시절의 성적과 임원활동 등을 토대로 선정되어 삶의 첫 장학금을 받게 되었다. 당시 장학금 수여식 때 부모님께서도 함께 오셨었는데, 아직까지도 굉장히 설레고 뿌듯했던 수여식의 기억이 또렷이 남아있다. 다음으로는 전적대 2학년 1학기, all A+를 받아서 받았던 다음 학기에 받았던 전액 장학금. 이후엔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에 입학하면서 고등학교 장학재단 장학금을 한 번 더 받았고, 약대를 다니는 동안에는 8학기 중 총 5학기 동안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을 받았다. 또 약대 행정실에서 제안을 주신 덕분에 학기 중에 행정실 업무를 도우며 근로장학금까지 수령할 수 있었다.

와. 사실 학교를 다니던 당시에는 그때그때 ‘아, 이번에도 장학금을 받는구나.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지, 이렇게나 많은 장학금을 받았었으리라고는 알지 못했다. 특히나 대부분의 장학금이 내 통장을 거치지 않고, 등록비로 바로 지급되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은 장학금의 도움을 받았구나’라는 개념이

조금 모호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쪽 나열해 보고 나니 대학 시절 동안 정말 큰 금액의 장학금을 받았었다는 사실이 이제야 감이 온다.

장학금이 우리 가족에게 전달한 가치

짧게 가족사를 얘기해 보자면, 책과 교과서에서 나오는 IMF는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내 어릴 적, 부모님과 함께 겪어온 아픈 과거의 기억이다. IMF 이후 계속 계약직으로 회사를 옮기시던 아버지가 앞두셨던 퇴직과, 아버지 퇴직이 다가오면서 작은 이모 유치원 일을 도우러 부산에 내려가 일을 하시던 어머니. 마냥 평탄하지만은 않았던 학창 시절이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는 대학 입학 전까지는 사실 우리 가족의 재정적인 상황에 큰 관심도, 부담도 없었다. 남들 다니는 학원에 다니지 못해 아쉬워 보지도 않았고, 학생의 신분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서 생각해 보면 정말 어린 생각이었던 것 같다. 지금은 나도 월급이 꼬박꼬박 나오는 정규직으로 회사를 다니는 사회인이 되었지만, 사실 나 하나만 챙기면서 살아가는 데도 넉넉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 끊이지 않는다. 하물며 부양하는 가족만 3명이었던 아버지가 당시를 지나오며 어떤 느낌이셨을까. 당시를 돌아보면, 그 동안 부모님이 앞에서는 내색 없으셨지만 얼마나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살아오셨는지 조금씩 알 것 같다.

이런 우리 가족에게 당시의 장학금 수혜는 큰 도움이자 마음의 위안이었다. 아무리 그래도 대학교 학비까지는 대주고 싶다고 생각을 하시던 부모님께도, 또 ‘지금까지도 부모님이 물심양면 지원해 주셨는데…….’하며 대학에 와서도 손을 벌리는 게 맞을까 고민하던 내게도. 정말 이 기회를 빌려 장학금 기회를 주셨던 많은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다시 한 번 전달하고 싶다.

장학금이 나에게 주는 가치

지금까지도 종종 생각나는 약대동기의 한마디가 있다. “언니, 학기 중에 과외는 왜 그렇게 많이 해? 힘들지 않아?” - 약학대학이라는 특성상 과목마다 3차, 4차 시험이 많아, 학기 중 ‘시험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 기간이 길었고, 때문에 같이 다니던 친구들 중에서도 과외 등 용돈벌이를 하지 않는 친구가 많았던 걸로 기억한다. 하지만 나는 부모님께 가능한 손 벌리지 않고 용돈을 쓰고, 학비를 내고 싶다고 생각했었다. 그래서 꾸준히 학기, 방학을 가리지 않고 최소 2-3개의 과외 혹은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리고 이것은 나와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됐다.

그런데 여러 학기 장학금을 받으면서 나의 생활 패턴이 바뀌게 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학기 중에 과외로 벌었던 돈이 학비로 나가지 않아도 되니 과외비는 온전히 용돈으로, 또 저금으로 모을 수 있었고, 덕분에 대학 다니면서부터는 부모님께 용돈으로 손 벌리지 않을 수 있어 소소한 효도를 할 수 있었다. 그 뿐이었을까. 과외비 받는 날 혹은 나름의 목돈이 모였을 때는 가족들에게 썸밥 정식 한 그릇, 치킨 한 마리, 기분 좋게 대접할 수 있는 기회도 주었다.

또 내 대학 시절 별명 중 하나인 ‘동아리 갑부’라는 명칭을 얻는데도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한다. 심리적인 여유가 생기면서 ‘대학생활의 꽃’이라고 불리는 동아리 활동을 원 없이 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도 종종 떠오르는 많은 추억들을 쌓았다. 약초를 다루던 동아리와 교외 봉사하는 약제봉사 동아리를 통해 약학 대학생으로써 자부심과 다양한 추억들을 쌓았고, 또, 클래식 기타 동아리, 노래패 동아리, 댄스 동아리에서 여러 번 공연을 하며 내가 꿈꿔왔던 대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었다.

이러한 삶이 가능케 했던 것이 바로 종종 나에게 꿈처럼 찾아왔던 여러 차례의 장학금 덕분이라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다시 한 번 되돌아본다.

돌아보며

장학금 수혜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심리적으로도 누군가가 나와 함께 발맞춰 함께 걸어 주고 있다는 따스한 느낌을 준다. 이런 면에서 장학금은 나보다 한 걸음 앞서서 길을 걸어 본 누군가가 내밀어 주는 손이고, 힘들더라도 좀 더 힘내라는 응원이며 동력원이다.

나도 누군가에게 이런 응원이었던 적이 있나 생각해 보니, ‘서울대 프로네시스-나눔 교실’이 떠오른다. 교육소외지역 고등학교 친구들에게 내가 짧게나마 겪어 온 이야기와 전공과목에 대해 함께 나누어 줄 수 있는 기회였는데, 준비에 아쉬운 점도 있었고, 아주 전문적인 활동도 아니었던 터라 미안해하던 기억이 남아있다. 하지만 대학에 진학한 아이들이 연락 와서 했던 얘기를 생각해 보면, 그 활동을 통해서 얻어간 건 한 줄 지식보다도 훨씬 소중한, 든든한 지원군 같은 느낌과 응원이었다고 했었다.

내가 여러 장학금을 통해 앞서 가고 계시는 분들의 따스함을 내려 받았듯, 내 뒤에도 이런 따스함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참 다양한 것 같다. 그 기회를 틈틈이 잡아내지 못하고 있을 뿐. 언젠고 내가 받았던 응원과 기쁨을 또 다른 그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봐야겠다고 되새겨본다.

상대적인 가난

| 최진현 (경영대학 경영학과)

가난은 상대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어도 제가 경험한 가난은 그러했습니다. 수박이 유명한, 농촌 지역에서 자란 저는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28평가량 되는 따뜻한 집, 때 되면 나오는 어머니의 밥. 더울 때 입는 반팔 티들과 추울 때 입는 두꺼운 파카. 무엇보다 저의 안위를 걱정해 주시는 부모님.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동네에 사는 아이들의 경제적 수준이 다 엇비슷했기 때문에 더욱이 저희 부모님의 부(富)가 대한민국 사람들 재산의 표준분포 속 어디에 위치하는지 신경 쓸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학교를 서울대학교로 진학하게 되면서, 상황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저는 2015학년도에 신입생으로 서울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당시에 그런 기사가 났었죠. 서울대학교 입학생의 60%가 서울 강남 출신이라는 이야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당시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때의 저는 '촌놈' 이었고, 동기들과 마시는 커피마저 새로웠으니까요. 한 잔에 6,000원이 넘어가는 커피는 고급 프랜차이즈 커피숍이 전무한 동네에서 자란 저에게는 참 비싸게 느껴지는 가격이었습니다(지금은 몇몇 프랜차이즈 커피숍이 들어섰지만요). 하지만 서울깍쟁이 동기들은 그런 것에 익숙한지, 아무렇지 않게 비싼 커피를 주문하더군요. 저는 호기심 반 눈치 반으로 약간 손을 떨면서 주문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저의 용돈은 한 달 50-60만원이었습니다. 서울 올라가기 전 부모님과 협상했던 액수입니다. 부모님이 신입생인 저에게 주실 수 있었던 최대 금액이자 적절하다고 생각했던 금액이죠. 사실 이

금액이 절대적으로 적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한 달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으니깐요. 하지만 대학 생활을 하다 보니 넉넉한 금액이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한 끼에 삼사천 원 정도 하는 학식만 세 끼 먹어도 하루 만원입니다. 즉 밥값으로만 한 달에 최저 30만원이 고정으로 지출되지요. 그런데 한창 동기들과, 선배들과 돌아다니는 1학년 때에는 어찌나 돈 쓸 일이 많은지요. 맛있는 밥이라도 먹을라치면 한 끼에 만원이 훑 넘을 때도 종종 있고, 식사 후에는 늘 달달한 디저트를 먹으러 가자는데, 가지 않을 수가 없더군요. 그뿐입니까? 거기다 학교 다니는 부대비용이 만만찮았습니다. 전공서적들은 왜 이리도 비싼지. 결국 용돈은 늘 모자랐습니다. 그런 고로, 신입생 시절의 저는 항상 쪼들렸습니다. 문제는, 다른 아이들은 그 정도 소비에는 눈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픈 것도 함께 아프면 조금 아플 만 한데, 같이 아플 친구들이 별로 없더군요. 이 때가 입학생의 많은 수가 '강남' 출신이라는 뉴스 기사가 저에게 부모님의 경제력에서 기인하는 용돈의 차이로 환원된 순간입니다. 이렇듯 2015년은 저에게 뼈까번쩍한 '서울물'을 알아갔던 시기이지만 역설적으로 제 인생 처음으로 가난을 느꼈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지출을 줄이든지, 아니면 수입을 늘리든지. 그런데 사람이 간사해서, 돈을 적게 쓰다가 많이 쓰기는 쉽지만 반대 방향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저도 다르지 않더라고요. 용돈이 모자라니 지출을 줄이는 대신 과외, 멘토링 아르바이트, 근로 장학, 번역 아르바이트, 육체노동 등 다양한 수입원들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니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깨달았죠. 나는 다른 서울대학교 학우들에 비해 머리가 좋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일요. 남들보다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하니 성적이 시원찮았습니다. 하지만 대학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공부이기에 모두 내려놓고 학업에 집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과외를 하면 주 2회 2시간 수업 기준으로 한 달에 사십만 원 가량을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수입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서울에 갓 올라왔을 때처럼 커피를 마시거나 조금 비싼 밥을 먹을 때 부담을 느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주위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었죠.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저에게 용돈을 넉넉히 주지 못하는 부모님이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사실 자기가 번 돈을 부모님께 드리는 학우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부모님을 탓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고민은 해결되지 않은 채,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학기 초, 단과대 행정실로부터 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특정 소득분위를 만족하는 학생들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6개월 동안 생활비로 30만원씩 지급하는 장학금이 있으니 신청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단과대의 82학번 선배님들이 모아 지급하는 장학금이라고 하더군요. 과외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등록금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생활비 장학금이라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 장학금을 받은 후 한층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에 임할 수 있었고, 생전 처음으로 B보다 A가 많은 학점을 받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이 어디서 부족함을 느끼는지 정확히 반영한 장학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인문계열 등록금은 경제적 상황이 일정 정도 이하라면 국가장학금으로 100%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단과대 공지에 올라오는 많은 장학금들은 받지 못합니다. 대부분이 등록금을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학생살을 제대로 해 나가기 위해서는 등록금 문제뿐만 아니라 상대적인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사람은 공부만 하며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학생들도 때로는 맛있는 것을 먹고 싶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고, 연인에게 선물을 사주고 싶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충족되지 않으면 삶이 빈곤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물론 학업에도 악영향을 끼치죠. 그러나 상대적인 가난은 이런 학생들에게 공부와 일상의 기쁨 중 선택을 강요합니다. 학생들은 이와 같은 가혹한 선택의 굴레 놓여 있지만 상대적인 가난, 상대적인 어려움은 절대적인 어려움에 비해 크게 주목받지

못합니다. 개인이 해결해야 할 몫으로 치부되는 어려움입니다. 사실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은 문제인데 말이죠. 그렇기에 이런 상대적인 어려움에 주목해 도움을 주는 월 30만원의 생활비 장학금이 아주 소중하고,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누군가의 눈에는 크게 어렵지 않아 보이는 상대적인 어려움일지라도 이것이 당사자에게는 매우 답답한 상황을 초래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어려움을 알아주고 도와주는 손길이 당사자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도 경험했습니다. 전에는 내가 잘난 줄로만 알아 내 스스로 모든 일을 척척 마치고 훌륭한 대학 생활을 할 줄 알았으나, 그것이 아니더군요. 사회의 여러 손길들이 저의 많은 필요들을 채워줄 때에 저는 건강하게 한 발 한 발 앞으로 내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장학 수혜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을 돕는 것에 대한 저의 마음을 한껏 낮추었습니다. 전에는 회당 꽤 큰 액수를 받고 진행했던 멘토링 프로그램을, 최근 고교 선생님의 부탁으로 모교의 후배들에게 기꺼운 마음으로 진행해 주기도 했습니다. 별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제 마음에 대가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전혀 없어서 놀랐습니다. 그저 제가 그들의 여러 어려움 중 하나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여 저는 앞으로도 즐거운 마음으로 같은 사회 공동체 구성원의 어려움을 도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려움이 그저 스쳐보았을 때에는 그리 심각해 보이지 않아도 말이지요. 그리고 이런 저의 출발점은 바로 서울대학교 경영대 82학번 선배님들의 장학금입니다. 제가 풍요로운 대학생활을 누리고, 나아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된 까닭은 경영대의 82학번 선배님들의 장학금 덕분입니다. 아직 감사 편지 한 통 드리지 못했지만,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 꼭 올리고 싶습니다.

저의 어린 날을 빛내주신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 박도영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고마우신 후원자님, 안녕하세요.

저는 관악에서 5년간의 학부 생활을 마치고 졸업을 앞둔 학생입니다. 저의 어린 학부 시절을 빛내주셨던 수많은 후원자님께 감사드리며 지난 5년을 정리하고자 이 편지를 씁니다.

고등학교 3년간 그토록 갈망하던 관악에서의 대학 생활이었지만, 저의 1학년 생활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공무원이셔서 소득 분위는 10분위였지만, 부모님께서 양가 조부모님의 투병 비용을 오롯이 부담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뻔히 알면서도 학자금 이야기를 쉽게 꺼낼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나 죄송한 마음을 무릅쓰고 1학년 1학기만 등록금을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입학 후 과외와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제가 직접 충당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과외를 여러 개 병행하고, 대가를 지불받는 대외활동을 하면서 생활비를 아끼고 또 아꼈습니다. 었친 데 덮친 격으로, 심지어 가을에는 어렵게 마련한 노트북도 도난당했습니다.

비참했습니다. 제가 원했던 대학 생활은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기들과 캠퍼스를 거닐고 장터를 찾아다니며 추억을 쌓는 대신, 저는 서울 곳곳에 있는 여러 과외 학생 집을 방문하며 서너 시간씩 지하철을 타야 했고, 노트북을 잃어버렸으니 과제를 하기 위해서는 정보화 본부에 거의 매일 가야 했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난 후 숨 가쁘게 과외 학생 집으로 달려가 수업을 두 개 하고,

녹초가 되어 정보화 본부에 돌아와 과제를 마무리하고 나면 새벽이 되곤 했습니다. 거리의 주황 불빛만이 저를 반겨주는, 아무도 없는 아크로 광장, 관정관 계단을 터덜터덜 올라 기숙사로 향하다 보면 서러워 눈물이 찼습니다.

스무 살 저 혼자 힘으로 감당하기 버거웠고, 장학금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소득 분위로 인하여 교내 장학금은 받기가 상대적으로 더 어려웠고, 교외 장학금을 적극적으로 찾아 지원해보기로 했습니다. 비록 성심껏 작성한 서류가 탈락하는 것을 보며 마음이 아플 때도 많았지만, 1학년 2학기에 적극적으로 외부 장학금을 찾아본 결과 제 고향의 구청과 신라문화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수여 받을 수 있었고, 하늘이 도우신 덕택에 초과 학기 때에도 학과 동창회 장학금과 성적 장학금을 수여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원자님께서 베푸신 이러한 장학금은 저의 어린 날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후원자님께서 베푸신 장학금 덕분에 다양한 경험을 하며 시야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등록금 걱정을 덜자 금전적 보상이 없는 대외활동에도 더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었고, 제가 선택할 수 있는 활동의 선택지가 폭이 한층 더 넓어졌습니다. 교내 통일평화연구원의 양안 답사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 정세에 대한 안목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사범대학 해외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통하여 뉴욕에서 한 달 동안 머무르며 주 전공인 영어 실력을 향상할 수 있었고, 이 경험을 살려 서울시 청소년 대표로서 베이징의 청년 포럼에도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과외를 하며 등록금을 마련하기에도 바빴을 시간인데, 후원자님 덕택에 세계를 누비며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다양한 사람이 저와 함께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후원자님께서 베푸신 장학금 덕택에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었습니다. 정규 학기 중에는 주 전공인 영어교육을, 초과 학기 중에는 학생설계전공 건강형평정책을 즐거이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학부 4년을

마무리할 때쯤 보건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에 관심이 생겼지만, 등록금은 정규 학기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어 초과 학기의 등록금을 마련하는 것도 크나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과 선배님들께서 모아 주시는 동창회 장학금과 성적 장학금 덕택에 설게 전공을 만들어 학부에서의 마지막 한 해 동안 보건대학원 수업도 듣고, 학생 자율연구를 통해 논문도 작성하며 보건학을 신나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후원자님께서 베푸신 장학금 덕택에 저는 앞으로도 함께할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신라문화장학재단의 청아장학생회에 가입하여 매달 장학생회 친구들과 사회복지관 봉사활동을 다니고, 방학이면 친구들과 산과 강을 찾아다니며 잊지 못할 추억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청아회를 졸업하신 상아회 선배님들께 진로 상담도 하고 밥도 얻어먹으면서 선배님들처럼 멋진 사회인이 될 것을 다짐하기도 하였습니다. 장학재단 친구들은 장학금을 받기 위해 모였지만, 앞으로도 서로 의지하고 등을 토닥이며 함께 인생길을 걸어갈 소중한 인연이 되었습니다. 이런 귀한 인연을 만들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5년간의 학부 시절 곳곳에 후원자님의 손길이 스며들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정든 학교를 떠나게 되어 무척 아쉽지만, 많은 후원자님의 귀한 도움으로 제가 관악에서 그동안 소중한 추억과 따스한 마음을 품고 교정을 떠날 수 있게 되었음에 마음 다해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인연을 맺으며 살아가겠지만, 후원자님께서 베푸신 소중한 도움을 언제나 가슴에 깊이 새기며 저 또한 이러한 나눔의 선순환에 일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의 어린 날을 빛내주신 당신께, 나눔의 선순환을 알려주신 당신께 가슴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 무엇이든 하고 싶어서, ‘장학 컨설턴트’가 되다.

| 박제호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24,458,000원. 2012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 입학하여 학부를 졸업할 때까지 받은 장학금입니다. 4년간의 등록금보다 많은 액수의 장학금에는 얼굴 모를 동문들의 소중한 생활비 장학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은 등록금을 낼 수 없었고,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던 저를 힘차게 일으켜 주었습니다. 장학금 수여식에 참석하던 날, 훗날 저 또한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장학금으로 인해 저는 졸업을 앞두고 부담 없이 공부에 매진할 수 있었고, 2017년 졸업 직후 임용이 되어 교사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저는 장학금 기부에 대한 다짐을 가슴에 품고 있었지만, 계속해서 어려워지는 가계상황으로 월 200만원 남짓의 월급으로 제 자신과 가족을 챙기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렇게 첫 해가 정신없이 지나고, 둘째 해 담임을 맡아 학급 학생들과 상담하면서 몇 학생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눈앞에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너무나 힘들고 여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 학생들에게 직접 도움을 줄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위로하고 힘내라고 말해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장학금 수여식에서의 다짐이 떠올랐고, 마음을 고쳐먹고 제가 지금 당장 학생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장학 컨설턴트’는 제가 붙인 이름이고, 나름대로 찾은 답입니다. 중개자로서 기부자와 장학생을 이어주고, 장학제도를 개편하고자 노력합니다.

세상에는 꿈을 가진 청소년들에게 기부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분들은 기부금이 소중하게 쓰이기를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꿈과 열정을 갖고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원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저는 제 손이 닿는 범위에서, 이 둘을 이어주기로 하였습니다. 공문서함을 뒤져서 장학금 정보를 얻고, 장학재단 사이트를 돌아다니며 학생에게 적합한 장학금이 있는지 수시로 확인합니다. 교내 장학금도 놓치지 않고 필요한 학생들에게 안내하고, 이 학생에게 왜 이 장학금이 필요한지, 왜 장학생으로 적합한지를 담당자에게 어필합니다.

또한 장학제도에 대한 의견도 적극적으로 내놓습니다. 단순히 장학금을 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장학금 기부자의 의지를 이어받아 장학생들이 훗날 어려운 이들의 큼지막한 우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내 장학금 제도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성적장학금의 경우 장학생들은 단순히 성적이 좋아서 상금으로 장학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뜻깊은 기부가 있었고 본인이 성장하여 그 기부의 의지를 이어달라는 부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의 장학제도는 서서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학교 발전계획 수립 팀에 참가하여 장학금 제도 개편안을 담당하게 되었고, 저는 지금도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11,000,000원. 2019년부터 지금까지 담임학급의 어려운 학생들이 받게 된 장학금입니다. 올해부터는 연 320만원의 생활비 장학금을 지급하는 모 재단의 교사 멘토로, 학급의 어려운 학생을 멘토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 힘든 상황이지만, 상황과 관계없이 제 위치에서 양 손을 내밀어 기부자, 장학생 두 사람의 손을 맞잡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뿌듯함과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장학금을 받을 때의 다짐을 지켜나가고 있다는 안도감을 느낍니다.

저는 장학제도를 공부하며 교육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업을 더욱 이어나가고 싶다는 생각과 함께 2019년 9월, 용기를 내어 사범대학 대학원에 입학하였습니다. 교사로서 출근도 하고, 야간 수업을 들으며 몸은 힘들지만 앞으로 더욱 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기쁩니다. 제가 꿈을 이루고, 용기를 내고, ‘장학 컨설턴트’가 되어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의 시작점에는 기부자들의 응원이 있었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뜻을 이어받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꺼져 가는 불씨에 기름을 부어준 장학금

| 정찬영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제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 청소년기의 학원비를 면제해주신 박대은 선생님, 2년 전 삶을 포기하려고 했을 때, 제게 도움의 손길을 건네준 정신건강센터 이화영 선생님, 그 전부터 재단에 후원하셔서 선한인재장학금, 긴급구호장학금, 충북인재양성재단 장학금으로 제가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신 모든 기부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수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받은 대로 환원하자

아버지의 목사라는 직업은 이윤추구보다는 한 종교의 설파를 목적으로 두었기에 저희 가정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저는 공부를 하고 싶었고 어려서부터 가정에 보탬이 되고 싶었기에 장학금을 받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학창시절 은사님은 이러한 사실을 아시곤 대학 진학 전까지 학원비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꼭 은혜를 갚겠다는 말에 은사님은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감싸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배려와 봉사의 가치를 깨닫게 한 은사님의 말씀은 제 삶의 원동력이자 마음속 책임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깊은 구멍에 빠진 적 있지. 가족과 친구에겐 문제없이 사는 척 뒤섞이던 자기혐오와 오만 거울에서조차 날 쳐다보는 눈이 싫었어. 열정의 고갈 어떤 누구보다 내가 싫어하던 그 짓들 그제 내 일이 된 후엔 죽어가는 느낌뿐 다른

건 제대로 느끼지 못해 뒤틀려버린 내 모습 봤지만 난 나를 죽이지 못해”-
프라이머리의 독(Feat. E Sens) 중

생각보다 컸던 짐

은사님의 말씀대로 저는 저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제게 도움의 손길을 내주신 분들께도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실력을 먼저 굳건히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서울대의 선한인재장학금 덕분에 과외를 줄일 수 있어서 공부에 최대한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고 높지 않은 학점 컷으로 심리적 부담도 적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에 힘입어 5학기를 마친 시점에도 평균 평점 4.2 이상을 유지했고 공군 입대를 준비하며 유학까지의 모든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공군 777기 훈련소에서 간수치 이상으로 쫓겨나며 좌절했습니다. 그토록 열심히 노력했지만 제 능력 밖의 일이라 너무 억울했습니다. 이런 심정을 부모님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에게는 당시에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힘과 희망만 되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혼자 끙끙 앓다가 시간에 쫓겨 복학하게 되었고 과외가 끊긴 상황이라 유학자금을 보탬이 되고자 모은 돈, 선한인재장학금, 충북인재양성재단의 생활비 장학금 덕분에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진 목표는 점차 희미해져만 가며 이상과 현실의 괴리로 괴로운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조바심과 압박감이 찌그러트려 놓은 젊음. 거품, 덧들, 기회 대신 오는 유혹들. 그 모든 것의 정면에서 다시 처음부터 붙잡아야지 잃어가던 것”- 프라이머리의 독(Feat. E Sens) 중

불확실한 미래와 무기력했던 나

상황이 도저히 좋아질 기미가 안 보이고 해결책을 찾지 못하자 저는 점점 더 조급해졌습니다. 마음의 감기는 점점 심해져 7학기에는 도저히 버틸 수 없어서

중도휴학을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치료에 집중하고자 병원, 대학생활문화원, 정신건강센터 상담 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대학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으려면 50만원 남짓 한 돈을 선금으로 지불해야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전날 제 수중에는 20만 원 정도의 돈이 있었기에 더 이상의 살아갈 의욕도 사라졌고 짧은 시간 동안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등바등 살아온 과거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마지막으로 기적을 바라며 통장잔고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날 점심쯤에 선한인재장학금 30만원이 추가로 입금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진단비만 있으면 어떻게든 살아 갈 텐데……’라는 생각을 했다가 사람이 참 감사한 것이 딱 필요한 만큼만 채워지자 ‘신의 장난일까? 축복일까?’ 저울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마음을 다잡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내게도 찾아온 기회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나니 목표도 제 상황에 맞는 것으로 재설정하고 좋은 기회들도 잡기 시작했습니다. 치료도 잘 받으면서 현재는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안정기에 돌입해서 너무나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여태껏 제가 바란 ‘받은 대로 환원하자’라는 가치관을 실현하고 싶어졌습니다. 제가 새 삶을 살 기회가 된 장학금을 이제는 제가 누군가에게 지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드니 흐지부지되기 전에 바로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학우들에게 20만원씩 지급하는 것을 계획하고 제게 도움을 주신 상담 선생님께 “저와 비슷했던 환경에 처한 학생들과 연결해주세요!”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학우를 연결해주셔서 서로를 다독이며 응원으로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대화를 마무리하며 예전의 부족이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전 기적을 믿습니다. 30만원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렸고 작은 나눔이 점점 물결쳐 큰 파도가 될 날을 꿈꿉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기부자 혹은 예비 기부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더 성숙해질 기회를 얻을 수 있었고 저를 지원해주는 사람들이 있음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그 일원이 되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버팀목이여, 감사히 또 안녕히

| 송성윤 (공과대학 전기정보공학부)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 2월 졸업과 동시에 대학원에 진학할 예정인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학부생 송성윤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분들의 도움 덕분에 무사히 졸업을 할 수 있었으며, 또한 제 꿈을 향해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 서울대학교와 구성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대학교를 지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할 수 있게 되어 무척이나 기쁩니다.

수기를 작성하기 위해 5년간의 학부 생활을 곱씹어보니, 감회가 무척이나 새롭습니다. 첫 등록금을 벌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과외를 했던 신입생 시절부터 코로나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이번년도 봄 학기까지, 힘들었던 때 순간순간마다 장학금을 통해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시간들이 지금은 아득하기만 합니다.

먼저 저는 서울대학교에 다니면서 세 종류의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로 국가와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국가장학금, 두 번째로 공과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현송장학금,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학생들을 지원해주는 위기극복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단 하나의 장학금이라도 받지 못했다면, 대학원 진학과 졸업은 고사하고 지금 이 시각에도 저는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와 과외를 전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얘기하고 싶은 장학금은 ‘국가장학금’입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유복하지 못한 집에서 자랐기에 2016년 입학했을 때부터 8학기 동안 전액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학교보다는 적은 금액이지만, 집안의 생계를 일정 부분 책임지면서 제 생활비 또한 마련해야 했던 저에게 등록금은 너무나도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등록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은,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저를 지탱해주는 하나의 버팀목이었습니다. 초과 학기를 다닐 때는 교칙 상 등록금을 지원받을 수 없었지만, 국가장학금 덕분에 정규학기 동안 조금씩 저축할 수 있던 금액으로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학업을 놓지 않도록 항상 저를 지탱해주며, 지금의 ‘나’를 있게 해준 하나의 버팀목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준 장학금인 현송장학금이 있습니다. 2학년 1학기부터 4학년 2학기까지, 매 학기마다 현송교육문화재단을 통해 생활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이 장학금으로 인해 저는 처음으로 돈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수 있었고, 또 ‘희망’을 맞볼 수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저희 집안의 경제상황이 다소 어려운 탓에,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고등학교 3년과 생활비를 벌어야 했던 대학교 1년은 저에게 있어 생존과 투쟁의 시간이었습니다. 학창 시절, 유일한 특기라고는 공부뿐이었던 저였지만, 동네에서 작은 교습소를 하시는 부모님에게 저는 한없이 어여쁜 학생이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일종의 보중수표였습니다. 공부를 잘하면 잘할수록, ‘전교 1등이 다니는 교습소’ 라는 소문을 듣고 밀물처럼 찾아온 학부모님들과 학생들로 부모님의 작은 교습소는 붐볐기 때문입니다. 돈 계산 때문에 매번 전전공금하시느라 근심이 어린 부모님의 얼굴에서, 작은 웃음이라도 볼 수 있었던 적은 그 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공부를 손에서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님과 저희 집을 위해서 공부했던 3년, 그 영광의 시간은 제가 대학교에 진학하면서 막을 내렸습니다. 썰물과도 같이

빠져나간 학생들을 붙잡기 위해서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필요했지만, 이미 커버린 제가 그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진학을 하면서 휘청 이던 저희 집을 위해서, 신입생 1년의 시간은 과외와 아르바이트로 점철되었습니다. 잠 잘 시간을 쪼개 공부를 했고, 공부할 시간을 쪼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열심히 살면 언젠가 별들 날이 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지만, 제가 얻을 수 있던 것은 부모님의 표정을 똑 닮은 근심 어린 얼굴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능력을 발휘해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던 제 포부는 사라져갔습니다.

하루 빨리 취업을 해서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이 커져가던 찰나, 학과 사무실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들 중에서,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정하여 지원해주는 장학금 덕분에 4학년을 끝마칠 때까지 생활비 걱정은 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를 지탱해준 두 번째 버팀목입니다. 남들이 일할 때 일하고, 남들이 공부할 때 공부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생활비 걱정을 하느라 전전공공하지 않아도 되어 표독스럽고 까칠한 제 모습은 사라지고,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학금 덕분에 처음으로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학원에 진학하여 제가 원하는 공부를 하면서, 제 능력을 키우고 발휘하여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희망. 단순히 취업을 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한 꿈을 꾸었습니다. 만약 이 장학금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 모습은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일지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가 온다는 경험과 함께, 제 꿈과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 두 번째 버팀목에게도 고마웠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은 이번 1학기에 받았던 ‘위기극복장학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교습소가 새해가 되고 약 1~2개월 정도 영업을 중지해야

했습니다. 대학원 연구실 인턴 생활과 함께 초과 학기를 병행하고 있었지만, 다소 여유로운 시간표 덕분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비를 벌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상황인지라 새로운 과외나 아르바이트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국장학재단에 생활비 대출도 신청했지만, 월세를 비롯한 각종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턱 없이 모자랐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감조차 오지 않던 상황에서 서울대학교, 그리고 교수님들로부터 코로나위기극복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규학기에 재학 중인 학생들만 받을 수 있던 긴급구조장학금과는 다르게, 위기극복장학금은 초과 학기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장학금 덕분에 저희 가족은 숨통을 틔울 수 있었으며 저는 무사히 초과 학기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졸업과 대학원 입학의 향한 단 한 발자국, 그 한 발자국을 뺄 수 있게 도와준 위기극복장학금이 제 마지막 버팀목이었습니다.

이 세 개의 버팀목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제 모습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 없었을 것이며, 대학원 진학과 제 꿈 또한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저희 집은 위기를 극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든 버팀목에게, 그리고 이러한 버팀목을 제공해준 서울대학교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꿈과 희망을 저버린 채 전전공공하던 20살에서, 이제는 희망을 품고 꿈을 향해 도약할 준비를 하는 24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정든 학부 생활을 마치고, 저는 더 큰 무대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비록 저는 떠나지만, 서울대학교 그리고 다양한 장학재단을 통해 많은 학부생 여러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꿈을 펼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그리고 지금의 저를 있게 해준 버팀목이여, 감사히 또 안녕히!